

학교법인 창성학원

2024학년도 제4회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2
재적임원	8	2
참석임원	8	0

1. **회의일시:** 2024.11.22.(금) 17:00-18:10

2. **회의장소:** 대덕대학교 정곡관 10층 소회의실

3. **회의소집 통보일:** 2024.11.14.(목)

4. 임원 출석현황

□ 참석인원(8명)

- 이사(8명): (직접참석) 강경래, 김대성, 김조용, 김태근, 김현리, 성차용, 이정민, 임정섭

□ 불참인원(2명)

- 감사(2명): 조현준, 황인상

5. 회의안건

가. 의결안건

□ 제1호: 대덕대학교 총장 김대성 직위해제(안)

□ 제2호: 대덕대학교 총장 김대성 징계의결 요구(안)

□ 제3호: 학교법인창성학원 이사 김대성 임원(이사) 해임(안)

이사	임정섭	이사	이정민	이사	김조용
----	-----	----	-----	----	-----

나. 기타안전

□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 건

6.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2024학년도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재적이사 8명 중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우리 법인 정관 제2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성원되었음을 간사가 보고하다.

나. 개회선언

의장(이사장: 임정섭) 2024학년도 제4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이번 이사회는 성차용, 김태근, 김현리, 강경래 이사께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개최되었다고 하다.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제27조에 의거하여 보고안전부터 상정하되 보고는 생략하겠다고 하다.

(참 석 이 사) 동의하다.

(이사 김조용)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하다. 오늘 이사회 안전에 대해 법인사무국에 전화하여 회의자료가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다. 이에 따라 사전 검토가 불가능 하였으므로 판단이 불가함을 말하다. 두 번째로 현재 징계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을 부의하는 것은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지며,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당사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도 없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의 금지의 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2항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당하지 않는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다. 징계처분도 없이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며, 이번 안전이 심의가 되고 의결이 되면 사립학교법 제5조, 민법 제34조 및 35조에 따라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연대책임이 본인에게도 따르기 때문에 이 안전을 참여하여 심의의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다. 이에 따라 본 회의의 폐회를 요청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폐회의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재민	이사	김조용
----	-----	----	-----	----	-----

(이사 김조용) 본인의 의견이라고 하다.

(이사 성차용) 의견으로 마무리하시고 폐회의 말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다.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시겠다고 하면 회의장을 퇴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본인의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우리가 모인 목적이 창성학원을 살려야겠다는 목적이고, 또 김조용 이사께서 의사진행 발언 중에 제시한 조항 이외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고 하다. 현재 밖에 교수회가 대기하고 있으니 교수회의 발언도 들어보고 싶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교수회는 금번 이사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다. 일단 본인이 사건을 인지한 날부터 말씀을 드리면 10월 17일 16시 30분에 성 []가 7장짜리 문건을 보여 주었는데, 그 문건은 16일에 해당 여교수와 정 [] 퇴직 교수가 4시간 동안 면담을 한 후 다음날 오전에 작성하여 정 [] 퇴직교수가 성 []에게 건넸다고 하다. 그 내용은 본인이 직접 당사자에 받은 것도 아니고 []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밀유지를 하고자 인권센터장에게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다. 그 이후에 사건 신고에 대하여 인권센터로 부터 이메일이 왔고, 사건인지, 문건취득 경위, 면담 내용을 기술하여 제출했다고 하다. 현재 인권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법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하다. 또한 10월 21일 오전에 사임서를 총장께서 쓴 배경을 발언해달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이 회의의 성격이 총장 직위해제를 하자는 내용인데 자초지종을 모두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직위해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하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당사자인 저도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아직 특정된 것이 없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특정된 것이 없는데 사임서를 왜 작성하였냐고 묻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재민	이사	김조용
----	-----	----	-----	----	-----

(이사 김대성) 협박에 의해서 작성하였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녹취록이 모두 있다고 하다. 그래서 사임서를 다음날 아침에 오셔서 가져가셨냐고 묻다. 기 제출한 사임서를 반환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다. 또한 본인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총장이 제척사유가 된다고 하다. 안전을 처리하기 전 총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총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법인으로 올라온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안전을 처리하냐고 하다. 어떠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안전으로서 상정할 수가 없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냐고 하다. 미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 사항은 현재 안전으로서 상정할 수 없다고 하다. 법인에 현재 인권센터로부터의 조사내용이나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상황 등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법인으로 수사와 관련하여 도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다. 뜬소문이나 정황만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그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전을 보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하다. 그간 사건에 대한 경위,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없다고 하다.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전체적인 개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사	임정섭	이사	이정민	이사	김초중
----	-----	----	-----	----	-----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다. 만약 뜬소문으로 안전을 처리한다면 처리해야 하는 안전이 너무 많아진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온 공문이 있지 않냐고 하다.

(*김태근 이사가 이정민 이사에 관련 문서를 참고로 전달하다.)

(이사 이정민) 이것은 별 건이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같은 내용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 건은 법원에서 대학으로 이첩해준 것이고,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한 것으로 박 교수가 이 교수, 조 에 제기한 내용이라고 하다. 이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밖에 교수회가 있고 대표성을 띄고 있는 기관이니 교수회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교수회는 대학 내 정규 조직이고 총장 직속에 있는 기관이라고 하다. 그렇다면 총장에 보고도 없이 교수회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학교의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지 교수회는 사건 조사 기관도 아니라고 하다.

(이사 이정민) 교수회 등 학교 측의 기관이 아니라 노동부, 경찰서 등 중립적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묻다. 언뜻 듣기에도 교수회는 교수를 대변하는 단체처럼 느껴지고, 그 쪽에서 해석하는 사건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반대적인 모습에서 해석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정민	이사	김조흥
----	-----	----	-----	----	-----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사회는 조사기관이 아니라고 하다. 나중에 제대로 조사가 된 이후에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회의안건과 관련해서 징계처분이 없는 상황에서 안건을 다루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또는 결과가 나와야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권위 있고 책임 있는 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소명이 안됐다고 하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다. 따라서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이 되면 이것은 민법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 연대책임이 따라오니 그러한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개인의 의견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될 것 같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수사개시가 통보됐냐고 묻다.

(이사 김태근) 수사 개시가 왔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수사개시를 법원에서 통보받은 것이 있는지 묻다.

(간사 송석원) 공식적인 문서로써 받은 것은 없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확약서 받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냐고 하다. 왜 사직서를 반려했냐고 하다. 이사장은 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사께 말씀드릴 이유는 없다고 하다. 그리고 성 게서 사임서를

이사	임 정 섭	이사	이 태 근	이사	김 조 용
----	-------	----	-------	----	-------

본인이 받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사직서를 썼다가 돌려 받은 것은 논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이사회를 통해서 사직원을 반려해야 한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다.

(이사 김조용) 사직서는 반려를 하든 철회를 하든 수리하기 전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의원면직을 하는 자체는 제출한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조용) 총장의 임용은 법인에 임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사직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이사회에서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판단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하다.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 자료를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지금 현재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인권센터도 학교기관이기는 하나 인권센터 또는 수사기관에서 양쪽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 내용이 현재 없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현재 이 자리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다. 이미 양쪽의 의견을 듣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정민	이사	김조용
----	-----	----	-----	----	-----

의장(이사장: 임정섭) 결과를 가지고 진행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동의하다.

(이사 강경래) 안전으로는 상정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백데이터를 가지고 안전으로 상정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징계처분이 없는 상태,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없는 점, 당사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점을 들어 안전 상정을 반대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수사개시통보서가 도달한 것이 있냐고 묻다.

(이사 김태근) 박 교수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본인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확실한 근거자료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이사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회의 소집을 요청하셨고, 회의가 열렸으니 안전은 처리해야 한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매뉴얼대로 하자고 말하다. 총장께서는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다고 하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잘못이 없었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았을 것 같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정민

이사

김조용

고 말했다고 하다. 본인은 상관도 없는 사항으로 현재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우리가 모인 목적은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학교의 일이 안된다고 하다. 교수회가 총장께 면담을 신청하면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그 의견을 듣고 내 입장을 표현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다. 언론의 내용을 찾아보니 유사한 내용이 발생하면 교수들도 직권면직 등을 하고 있고 수사가 들어가면 직위해제가 들어갔다고 하다. 그런데 왜 유독 대덕대학교만 직위해제를 못하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없다고 하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미투사건이면 일단 직위해제를 시켜야 한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조사 내용의 결과를 말씀해달라고 하다.

(이사 성차용)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하다.

(* 이사 전원의 동의 하에 17:48에 정회하고 18:10에 속회하다.)

(* 이사 간 본 회의의 안건 상정에 관한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임정섭) 관련해서 심의 및 의결을 해야 하나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다. 우선 인권센터장에게 지시를 한 사항이니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이후에 이 안건을 다루겠다고 하다. 간서명은 본인과 김조용이사, 이정민이사가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이 오늘의 이사회 마무리 발언에 이어 이사회에 참석하신 임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폐회선언이 있음. (*2024.11.22., 18:10폐회)

이사	임정섭	이사	이정민	이사	김조용
----	-----	----	-----	----	-----

2024.11.22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 사 장

임 정 섭

(서명) 임정섭

이 사

강 경 래

(서명) 강경래

이 사

김 대 성

(서명) 김대성

이 사

김 조 용

(서명) 김조용

이 사

김 태 근

(서명) 김태근

이 사

김 현 리

(서명) 김현리

이 사

이 정 민

(서명) 이정민

이 사

성 차 용

(서명) 성차용

(사임서 대해 협박한
적이 없으니 총장. 이사장
장여한 확약서 사인 했음
리각 기보차음